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1일 목요일 음 3월 22일 (14물)

목요일론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16℃, 낮 최고기온은 21-23℃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do.

Table with sunrise/sunset, moonrise/moonset, and day/night lengths.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가능지수 주의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5/22℃, 모레 흐림 15/21℃

월드뉴스

만장일치 패소 트럼프, 66억원 배상해야

“성폭행 아니어도 성추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트럼프 유죄'라고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는 시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전적 책임만 지게 됐을 뿐 수감 등 형사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속의절차에 들어갔고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지역 내 주택 미분양이 많아...



이 호 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최근 정부가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서울 등 주로 수도권 지역에 머문 것으로 보도됐다.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체

지역 내 주택 미분양이 많아...

주택 미분양은 1929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 수를 감안하면 서울 등 여느 대도시와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탓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4개월 연속 600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미분양 주택 수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분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를 살펴보면 동지역은 652호(34%)이며, 읍면지역은 이의 약 2배 수준인 1277호(66%)이다.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은 외지인 및 투자자들을 주된

수요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미분양 주택문제를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도내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도민의 수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금리 상승 및 규제 완화로 인해 외지인의 투자수요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주택시장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 예컨대, 1-2인 가구 증가, 개발용지 부족에 따른 택지공급 제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위주의 공급에 따른 아파트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징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그 원인이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타 지역과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고도제

한에 따른 적정밀도의 정비계획 수립 및 개발을 유도, 도민의 선호지역에 따른 주거 적합지 선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도민의 주된 수요대상 지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부동산 하위시장에 대한 분석은 유사성(similarity)과 조밀성(compactness)의 식별기준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인구의 구성, 평균연령, 소득수준, 산업분포 등 입주인에 대한 데이터와 공간정보체계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융합해 도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제주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마당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세요



김 현 주 제주시 용담2동 주무관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잘 작동해 오던 기후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와 폭설, 폭염, 가뭄 등을 불러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때마침 '5월 폭염'으로 몸서리를 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제주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신청받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

길 잃음 사고 없는 안전한 봄나들이



김 원 주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제주에서 발생하는 길 잃음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연평균 86건에 달한다. 이 중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은 경우가 가장 많아 절반 이상을 차지(55%)하고 이어 돌레길 탐방객(9%), 오름 탐방(5%), 올레길 탐방(6%) 등이 있다. 통계에서 보이는 대로 고사리 채취객이 급증하는 4월과 5월에 길 잃음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간간 지역은 건물과 같은 뚜렷한 기준점이 없어 자칫 방심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길 잃음 신고를 하더라도 어두워지는 시간대에는 구조대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워 부상, 저체온증 등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2년 전에는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70대 어르신이 길 잃어 다음날에야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혹여 날이 어두워지거나 방향을 잃어 사고를 당할 경우 무리하게 이동하기보다는 우선 119 신고 등 도움을 요청한 후 그 장소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밝은 옷 착용, 일행 동반, 휴대폰·호각 등 비상용품 소지하고 산 지형 특성상 일몰 시간이 빠르기에 일찍 내려올 수 있도록 산행 시간에 주의를 해야만 사고 없이 안전하고 파스한 봄 나들이가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 and service lis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 and service list.

Advertisement for Grand Protection (그랜드보청기) hearing aid services.

Advertisement for National Hearing Aid (국제보청기)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 and benefits.